데스크 시각

한강의 수상 소식을 듣던 날

김미은
편집국 부국장·여론매체부장

"무슨 큰 사고가 터졌나?"

취재 후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메시지 수십 개가 들어와 있었다. 말도 안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는 했던지라 또 큰 일이 난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부터 들었다. 대형사고가 터진 건 맞았다. 믿기지 않는 행복한 사고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독일 쾰른에서 취재중이었다. 메시지 중에는 앞서 슈투트가르트 취재에 함께 했던 통역자가 보낸 것도 있었다. 그는 "정말 눈물 나는 날"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에서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1년 넘게 준비해온 김멜라 작가의 소설 출간을 앞둔 참이었다. 독일에서 한국 문학을 출판하고, 서점에 책을 입고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이야기하던 그에게 이번 소식은 큰 힘이 된 듯했다. "보람을 느끼며 다른 작가님들도 열심히 키워야죠." 그는 의지를 다졌다.

나치·히틀러를 기억하는 법

며칠 뒤 네덜란드 로테르담 인근 도서관을 취재차 찾았을 땐 안내를 맡은 직원이 우리를 '한강 코너'로 데리고 갔다. 마침 통역자도 광주 출신. 우리는 한강이 "광주에서 태어났다"며 자랑했고, 그는 "환타스틱, 어메이징"을 외쳤다.

취재 중 우연히 독일 본 역사박물관을 찾게 됐다. 통역자 집에 이틀간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근처가 역사박물관이었다. 관람한 전시는 '히틀러(Nach Hitler) 이후-국가사회주의(나치즘) 에 대한 독일의 논쟁'이었다. 몇 년전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시리즈 취재 차 독일과 폴란드의 나치 흔적을 방문했던 터라 전시가 궁금했다.

히틀러의 광기와 죽음, 유대인 수용소의 유품 등 과거의 역사와 함께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유대인 희생자 추모탑 앞에서 무릎끓고 사죄하는 사진, 네오 나치 관련 행사, 역사를 기록한 예술가들의 작품, 학교 행사 등 관련 자료들이 가감없이 전시돼 있었다. 무엇보다 80대 노인부터 10대 학생들까지 패널에 적힌 글들을 하나하나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극우세력들이 점차 활개를 치고 있는 유럽의 상황이나, 5·18과 민주화 역사에 대한 왜곡이 여전히 멈추지 않는 한국을 떠올리며 '5·18을 기억하는 법'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이번 유럽행(行)에서는 '역사'가 바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북한에서 날아온 풍선이 인천공항 활주로에 떨어져 3시간이나 늦게 출발했고, 우연히 들른 독일박물관에서는 국가사회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대면했다. 슈튜트가르트에서는 푸른색 다윗별 국기를 내세운 이스라엘인들의 집회와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가두 시위를 몇 분 간격으로 보았다.

다시 한강 작가의 이야기. 나에게 한강은 '1970년생'이라는 단어로 각인된다. 1994년 첫 작품집 '여수의 사랑' 수록작들을 읽고 너무 놀라 나이를 확인했었다. 새삼 내 나이도 생각해보고, 20대 초반에 이런 글을 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중견 작가가 되면 그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었다.

이번 수상과 관련, 작품과 함께 인터뷰 등 그의 행보에 감명받은 이들이 많은 듯하다. 그를 보며 떠올린 단어는 '품위'와 '본질'이다. 전쟁중에 요란스런 축하 행사를 열지 않겠다는 것, 자신의 이름을 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서는 무려 세 개의 문학관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소설가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묵묵히 근본을 찾아가는 자세에서는 스무살의 나이에 한국 피아니스트로는 처음으로 '클래식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그라모폰상 2관왕'을 달성한 임윤찬도 떠올랐다.

노벨문학상 이후, 광주의 책읽기

한강 작가 덕에 책읽기에 관심이 높아졌다. 클래식을 한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임윤찬이 연주하는, 40분 분량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반복해서 듣는 불가사의함에 빠졌다는 고백처럼, 인터넷 댓글 중 "성인이 되고 나서 책 한권 읽지 않았던 내가 책을 구입했다"는 50대 남성의 글이 눈에 띄었다.

며칠 전, '소년이 온다' 마지막 장면에서 모티브를 따 '책커버'를 만든 서점 '책과 생활'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뿌듯했다. "와, 한강 책을 한꺼번에 사네요?", "이제 책 읽는 게 대세가 됐답니다." 20대 발랄한 여대생들이 '한강 선생님'의 책을 읽을 생각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풍경이라니. 광주시도 책읽기 관련 사업들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실적 쌓기에 급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며 '품위있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5·18 취재차 온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는 상무관을 가리키며 "저 곳이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곳이냐"고 물었었다. 오월 어머니들이 '소년이 온다'의 구절을 낭독했던 갤러리 포도나무 전시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회사 앞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시인 출신 기록관장이 고른 글귀는 인상적이었다.

한강과 김대중 전대통령과 '소년이 온다'. 이번 출장은 멀리 떠나와 광주를 생각한 날들이었다. 어제 KIA 타이거즈의 V12 달성 소식까지 더해지니, 정말 오랜만에 광주에 밝은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면 좋겠다.

社說

골목경제 활력 'KIA 효과' 내년에도 이어지길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며 'V12'를 달성했다. V12는 단일 구단 국내 프로야구 최다승 기록으로 KIA는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열두 번 모두 승리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올해 우승이 특별한 것은 1987년 이후 37년 만에 홈 구장에서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KIA는 시즌 시작 전 우승 후보에 들지 못했지만 초보 감독 이범호의 형님 리더십과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선후배 선수들의 협력 및 조화에 힘입어 정규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는 통합 우승을 일궈냈다.

KIA의 우승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광주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광주시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뤄낸 '타이거즈 정신'을 KIA가 이어준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다.

KIA 우승이 더 각별한 것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인데 KIA가 시즌 내내 구름 관중을 몰고 오면서 골목경제가 살아났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챔피언스필드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금호고속은 버스 30여 대를 증차했고 상무지구 호텔은 성수기 가격에도 가득 찼다. 치킨 주문이 늘면서 광주공공배달앱 주문이 평소보다 4배까지 치솟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함박웃음을 선사했다.

타이거즈의 인기만큼 광주는 야구 도시로 유명하다. 광주시는 이런 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스포츠 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있다. KIA의 우승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광주시의 스포츠 도시 광주 프로젝트가 더욱 구체화돼 소상공인들의 웃음꽃이 골목마다 피어나길 기대한다.

목포·순천대 통합 시한 넘겼지만 논의 계속돼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대학병원 신설 공모과정에서 이왕이면 지원 대학인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통합하자는 전남도의 주장이 대학가는 물론 지역에 큰 반향을 몰고왔다. 하지만 논의 시간이 짧아 통합 합의에는 실패했다. 양 대학은 국립의대 신설지역 정부 추천을 맡은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제시한 기한인 10월 28일까지 통합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 대학은 국립 의대 신설을 대학 통합을 통해 진행하자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세항에 대해 의견 차를 보였으며,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시한 내에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역기관은 양 대학 통합 합의 실패에 따라 어제 곧바로 공모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이날 오전에는 동부권, 오후에는 서부권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가졌다.

애초 용역기관은 양 대학이 10월 28일까지 통합합의서를 제출하면 '통합 의대' 설립 방식을 검토하고, 만약 제출 기한을 넘기면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지역 공모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용역기관은 공모 마감인 11월 20일 전까지라도 양 대학이 통합합의서를 내면 공모를 보류하고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국립대들이 자신들만의 특성을 버리고 다른 대학과 통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하고 모든 면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해진 기한에 통합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1월 20일 전에 통합합의서를 제출하면 통합 국립의대 설립 방식 추진이 가능하다고 한다.

양 대학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통합을 논의하고, 설혹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 궁극적으로는 양 대학이 통합해 미래를 대비하길 바란다.

은펜칼럼

육지의 '섬' 광주 도시미래

박홍근
건축사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들었다는 '훈요10조' 중 제8조에 '차령산맥 이남의 공주강(금강) 밖의 사람들을 쓰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건국 역사와 그 내용이 알려진 시점을 볼 때 당리당략에 따라 조작되었을 것이란 평에 무게를 두고 싶다. 현재,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사건'도 각기 다른 해석으로 평가·기록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의 '사실'도 향후 어떻게 역사로 기록될까 궁금해진다.

다시 차령산맥을 생각해 본다. 서울과 수도권이 팽창되면서 '대서울권'이란 말을 한다. 대서울권은 차령산맥 이북인 천안·아산까지 내려왔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제·산업·문화·인구 등의 낙수효과가 차령산맥을 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 일부 넘치는 효과는 청주와 세종, 대전지역으로 흡수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충청권과 노령산맥 넘어 광주·전남권 사이에서 별도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신(神)'이 창조한 산맥과 강은 지역을 나누고, 경제·문화·사회 등 삶의 방식을 다르게 만들었다. 요즘은 인간이 만든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신이 산맥과 강으로 나눈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교통망에 따라 삶의 경계가 바뀐다. 도로는 선으로, 산업은 면으로 지역을 연결한다. 행정구역상의 경계보다는 교통망과 산업에 따른 생활권역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예전엔 광주·전남의 교통 중심지였다. 지금은 광주만의 교통 종점이다. 전남 서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동부는 순천완주고속도로와 고속철도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연결되고 있다. 경제·문화·의료·쇼핑·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는 수도권의 변방, 지역에서도 섬이 되어가고 있다. 전남 동부권을 끌어당기는 영남 남부권과도 경쟁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광주도시미래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교통·경관 등등과 이를 만들어 가는 행정력·정치력·기획력·실천력 등에서 뒤쳐진 형국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수 없다. 조선시대처럼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만 외치고 있을 수도 없다. 변해야 한다. 그것도 혁명적으로 사람이 변해야 한다.

첫째는 정치가·선출직 공무원, 잘 뽑자.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제시와 실행과 그 결과물을 만들 사람을 모시자. 지역 활동 인재도 키워야 한다. 이곳 DNA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활동하는 전국적인 인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성장해야 한다.

둘째는 시민, 깨어있고 행동하자. 정책으로 경쟁할 '반반의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판·비난 대신에 대안제시와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란 말을 기억해야겠다. 깨어있는 시민이 많아야 지도자, 대표자들이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한다.

셋째, 전문가, 배워서 '남'도 주자. 캠퍼스와 본인 업무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난제를 해결할 방향 제시, 동력 지원, 지식 공유, 현실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업(業)의 본질은 전공 내용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공유하며, 인접 분야도 배우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한반도 지도를 보길 권해 본다. 산맥, 강, 교통망, 산업단지 등이 표현된 지도면 더 좋다. 경기도가 포함된 '대서울권', 대전·세종이 있는 '중부권', 부산이 중심인 '영남 동남권'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소지역성, 광주의 지리적 위치를 보자. 어떠한가. 육지의 섬처럼 보인다.

30년 후 광주 인구는 110만 명대가 될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다. 이대로 있으면 그럭저럭한 변방 도시가 된다. 의식개혁, 행동변혁, 결과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을 가지면 일자리와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도시미래에 대한 치열한 궁리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호남인의 기질, 무등산의 정기, 남도인의 저력을 믿는다.

기 고

매번 갱신되는 문장, 여든 아홉살 광주극장

이서영
시인·광주극장 코디네이터

광주극장은 매해 개관영화제를 개최하며 나이를 센다. 올해는 89주년째다. 아마 이 숫자를 본 순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인과적으로 배치하며 극장이라는 대상을 사람에 가까운 무엇인가로 판단했을 때 작동하는 연상이다. 역사를 누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누적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 숫자는 다소 과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숫자를 과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한 일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89주년이라는 숫자가 놀라운 이유는,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무너지지 않는다'(2024, 김귀민)는 의지와 분투가 견인해온 시간만을 뜻해서가 아니다.(그것은 사실 인간의 절실한 마음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 물론 이곳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내게도 광주극장이라는 장소는 여전히 기이하고 놀라우며, 마치 어떤 역사의 형식(혹은 진행방식)을 건축으로 시각화한 곳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인간의 시선과 비유를 기반으로 둔 것이다. 어떠한 공간에 나이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에 인칭을 부여하고, 특정한 문장들을 끌고 나갈 주어로 삼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한 그 주어가 구술할 수 있는 미래의 기록에 대한 믿음을 은연중에 갖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단락에서 기술이 아니라 구술이라고 표현한 이유 역시, 공간에 목소리가 깃들기를 바라는 지독히 인간적인 염원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사실 극장이라는 곳은 잠처럼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비어있는 스크린, 물리적 건축으로서의 극장 말이다.

영화제는 대개 축제가 그렇듯이, 다양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파생하는 일이다. 소리는 언제든지 '목소리'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것들은 서로 이어지거나 겹쳐지는 과정 안에서 마치 교차로와 가까워지며 특정한 큐레이토리얼을 구성한다. 혹은 끝없이 범람하는 문장처럼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알 수 없는 영역으로까지 흘러간다. 광주극장에서 진행되는 개관영화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탁월하다. 시민들과 함께 제작한 손간판을 올리고, 연계 토크와 콘서트를 진행하는 일들이야말로 일종의 축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공간에 소리를 얹는 과정은 믿음과 두려움, 모종의 두근거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고요한 풍경을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인간은 무성영화라는 깊고 고요한 영역에 음향을 얹고, 극장이라는 시공의 형식을 지어 사람의 일들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제야말로 사실 구술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극장'이라는 단어가 광주라는 지역에서 어떤 주어가 될 수 있는지, 이 지면 안에 충분히 설명할 재간은 없지만, 결국 영화제라는 것은 극장을 주어로 삼고 이어지는 술어들의 연쇄와 집합이 된다.

끝나지 않는 기록, 갱신되는 문장, 미완성의 책. 이런 이미지들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이유 역시, 이곳이 계속될 것이라는 현저한 믿음을 동료 혹은 관객에게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극장은 사실 인간의 일들과 유관하게, 동시에 무관하게 여전히 이곳에 있다.

사실 어째서 이곳이 놀라운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 있고,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기에 놀라운 것이다.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로 계속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일종의 길항작용을 느낀다. 그것은 1)역사의 누적, 2)그 역사의 누적에 저항하는 새로운 기록이 동시에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삶과 기록이 동시에 흘러가는 일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지점에서 광주극장은 귀하다.

無等鼓

남생이

"거북아, 거북아(龜何龜何)/머리를 내어라(首其現也)/내어 놓지 않으면(若不現也)/구워서 먹으리(燔灼而喫也)."

'삼국유사'에 전하는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탄생설화에 있는 고대시가 '구지가(龜旨歌)'에는 귀물로 여기는 거북이 등장한다. 대다수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거북(龜)이 당연히 바다거북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김수로왕이 다스린 금관가야가 낙동강 하류의 김해평야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시가에서 거북은 민물거북이인 남생이로 보는 게 맞을 듯싶다.

우리나라 육지에 사는 민물거북은 남생이와 자라 두 종류가 있다. 한자로 자라는 별(鼈)이라 하고 거북은 귀(龜)로 써서 구별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거북(龜)'이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남생이다.

속담에 '방죽에 줄남생이 늘어앉듯 한다'는 것이 있는데, 물가에 남생이들이 줄을 지어 앉아서 볕을 쬐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전라도 지역에는 강강술래와 비슷한 남생이 놀이라는 놀이가 전승되기도 하고, 의약서인 '동의보감'에 남생이의 말린 배딱지나 오줌을 약재로 쓰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만큼 남생이는 주변에서 흔하고 친숙한 동물이었다.

남생이는 주로 시골의 농경지 주변에 살았는데 논이나 용수로, 하천, 저수지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성품이 온순하고 동작이 느려 사람들에게 쉽게 잡혔다. 1960년대까지 약재로 또는 보신용으로 먹기 위해 남획되면서 수가 급격히 줄었다. 또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서식지가 많이 파괴된 것도 남생이가 멸종 위기에 몰린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남생이가 담긴 우표가 출시돼 반갑기 그지없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2024 영암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앞두고 월출산의 사계와 문화자원 사진, 영암군 캐릭터 3종이 담긴 우표 14개로 구성한 한정판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재단은 앞서 월출산 깃대종인 남생이를 활용한 굿즈 4종(씨름하는 남생이, 잠옷 입은 남생이, 남생이 그림톡, 남생이 에코백)도 출시했는데, 국립공원 월출산 탐방안내소 '국립공원 숍'에서 이 실물들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